



美議會
上·下院

CRBR(増殖爐) 予算을 承認

1980會計年度, 1億 74万 달러 策定

A decorative horizontal border consisting of a repeating pattern of stylized fern fronds.

美上院은 9月 27日 1억 7천
2백만 달러의 크린치리버 增殖
爐(CRBR) 개발관계를 포함하
는 80會計年度(今年10월부터 내
년 9月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였
다.

下院도 2日前,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승인하고 있으므로 C RBR 관계 예산은 이로써 미의회 上下 양원에서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남은 것은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릴 뿐이다.

양원에서 승인된 “1억 7천만 달러”에는 건강, 교육, 厚生을 위한 支拂給与資金 등 중요한 안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작년과 같이 CRBR 예산을 승인하리라고는 보고 있으나 확실한 예측은 할 수 없으며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上院에서는 심의에 있어서, 반파이스 譲員으로부터 CRBR 예산을 삭제하기 위한 修正案이 제출되었으나 64대 33으로서 이를 否決, CRBR 개발관계 1억 7천만 달러를 포함하는 1980會計年度 예산을 승인, 이보다 앞서서 下院도 25日, 同予產에 관해서 208대 203의 接戰으로서 승인하고 있다.

CRBR 문제는 카터 대통령이
77년 11月에 拒否權을 行使한
以來, 의회와 대통령 사이에서
트러블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이

번의 의회 上下兩院에서의 승
인에 의해 예산 실현이 「3번재
의 正直」이 될지 귀추가 주목
된다.

대통령은 금년의 예산敎書에서 에너지省의 80년도 LMFBR(液体金屬 高速增殖爐) 예산 원안을 LMFBR 관계 총액에서 3억 9천만 달러(予產權限)로 하 고 있기는 하나 CRBR에 대해서는 「예산을 짜지 않겠다」는 박차를 내놓고 있다.

議會側은 이를 위해 77년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이래 CRB
만의 예산법안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다른 重要案件과 엉키게
한 예산안을 심의, 대통령에게
提出하려는 방법을 취하고 있
다.

78년, 의회는 CRBR과 他の
公共予産이 엉킨 예산안도 대
통령에게 提出하여 同예산은 승
인받기는 하였으나 의회側의 「C
RBR 推進을 위한 예산」과 대통
령의 「CRBR 停止를 위한 예산」
과의 해석에 큰 차를 보였다. 여
기애 대해서 會計検査院 (GAO)
은 月予産을 CRBR 停止를 위
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裁
定하여 DOE에 通告, 이로서 C
RBR는 무엇인가의 명맥을 유
지하고 있는 혼쭐이다.

78년도 예산심의에서는 맥크루어 上院議員과 대통령 사이

에서 「81년까지 大型 종식로의 연구·개발을 행하며, 그 결과 C RBR를 繼行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때까지의 3년간은 CRBR 개발을 停止한다」라는 타협을 얻는 웃직임도 있었다.

그동안, CRBR의 설계는 60%를 넘었으며, 主要器機도 이미 계약을 마치는 등 완성된 기기류가 창고속에서 낫잠자고 있다고 하며, 만약 완전히 건설 중止가 되면 이때까지 投入된 6억 달러 이상의 血稅가 혓탕이 된다.

第2次石油危機,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서인지 미국에서는 장내 에너지
정책의 指針을 주제로 한 보고
서가 훌수상태이다

非營利 調査 그룹의 「리소시즈·후로·더·휴쳐」에 의해 「미국 장래의 에너지」와 「에너지·지금부터의 20年」이 8月 下旬부터 9月 上旬에 걸쳐 정리된 것도 이와 같은 1例이다. 前者は 션·스큐어 美發電 研究所의 에너지 연구센터 所長을 中心으로, 後者は 포오드財團의 委託을 받아 한스·伦즈버그를 中心으로 하는 9名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이 조사·연구한 것이다.

스큐어報告는 그 속에서 「輕水爐와 LMFBR」의 중요성을 강조, CRBR에 관해서는 신중한

아르헨티나 原發建設計劃

아토챠 2号, 西獨 KWU가 受注

重水 製造工場은 스위스 술수아社에 落札

A decorative horizontal border at the bottom of the page, featuring a repeating pattern of stylized flowers and leaves.

A decorative horizontal border consisting of a repeating pattern of stylized leaves or fern fronds.

아르헨티나 政府는 10月 1日,
計劃中인 同國 세 번째의 原子
力 發電所 아토챠 2號機에 西
獨의 크라프트벨크·유니온(KW
U)社製의 重水爐를 採用함을 발
표함과 함께 重水製造、工場은
스위스의 출추아社가 落札했음
을 發表하였다.

아르헨티나는 自國의 풍부한
天然우라늄을 利用할 수 있는
重水爐에 과녁을 좁히고 캐나
다의 CANDU爐, 西獨 KWU社
의 重水爐를 겸토해왔다. 原子
爐의 海外 판매가 부진한 시기
였던 만큼 캐나다- 西獨의 판
매戰은 불꽃이 튀겼으나 이번
의 발효에서 終止符가 찍혔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금년 2월,
4基의 原發 건설계획을 승인,
그 후 同國에서 重水爐의 受注
실적을 가진 西獨 KWU社와 캐
나다 原子力 公社의 판매는 잡
작스러이 活發化 하였다.

신규 계획의 4기中, 제1호에
상당하는 아토차 2號 원자력발
전소에 대해 AECL은 \$10億
7,500万, KWU는 그것보다 50
% 높은 \$15億 7,900万으로 입
札, 캐나다側은 「大幅의의」 코

스트라는 아르헨티나의 「決定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전망을 굳
혔다.

그러나, 서독측이 입札에서 내논 조건은 아르헨티나의 「自主技術 確立」을 발판으로 하려는 아르헨티나側의 大幅의 인参加를 인정하는 소위 「턴키方式」이 아닌 방법으로서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장래의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원자로는 반드시 KWU의 설계에 따를다는 것은 없다. 캐나다가 생각하고 있는 蒸氣壓力 투브의 채용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등 柔軟한 내용의 것을 提出하였 다.

한편, AECL側은 CANDU爐以外에 重水製造工場도一括해서 건설할方針을 내놓았다.

이번의 정부 발표에서 카스트로·마데로 NEA 長官은, 「重水爐와 중수제조공장은 따로 주문하는 데 “기술의 自主獨立”의 点에서 현명”하다고 하였으며, 속으로는 캐나다 측이 提示하고 있는 세이프·카이즈에 難色을 표시함과 동시에 전설 코스트에 과해서는 「CANDU爐 6

基分의 코스트는 西獨製 4기분
이라고는 단순히 비교할 수 없
다라고 서독이 낙찰한 이유를
들었다.

KWU는 原發설에서 아르
헨티나 국내의 제조 공장의 25
%의 株를 取得, 단계적으로 그
持分을 아르헨티나側에 還元해
주기로 하였다.

重水제조 공장은, 스위스의
술추아社가 年產 250톤 규모의
것을 \$ 3億로 낙찰, 동 공장은
네우쿠엔州에 건설될 예정이다.

참고 : 아르헨티나는 원자력 개발에서는 中南美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현재, 운전중인 서독製 아토챠 1號(PHWR, 34万kW)와 캐나다製의 엠벌세(CANDU, 64万8千kW)를 건설중이다. 정부는 금년 2月, \$50億의 예산으로 4基 건설, 2000년까지는 원자력으로서 총계 400万kW가까이를 가동시킬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시 9基의 原發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 서독에서는 이번의 아토챠 2號 原發受注가 앞으로의 受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해서 심한 판매戰을 벌여던 것이다.

표현으로서 「推進해야 할 일」이
라고 하면서도 「CRBR에 관해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못할
경우는 海外로부터 审証되

식로를導入하는 쪽이 경제적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런즈버그를 中心으로
한 보고서는 「2020년까지 LMF

BR의 경제성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 前者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퍼 폐닉스 등 海外의 実証爐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